

한국인 최초 PGA 챔피언스투어 1위 최경주 '금의환향' "우승하고 돌아와 값진 귀국길"

KPGA 투어대회 참가
"목표는 컷 통과하는 것"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51·SK텔레콤)가 금의환향했다.

최경주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인터뷰에서 최경주는 "한국에 올 때마다 고국에 간다는 들뜬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 우승까지 하고 오게 돼 더욱 값진 귀국길이 됐다"며 "이번 주도 바쁜 일정이지만 좋은 경기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주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끝난 PGA 챔피언스투어 투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3언더파 20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니어 투어에서 우승한 한국인 선수는 최경주가 처음이다. 최경주가 PGA 투어 주관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10년 4개월 만이다.

우승 직후 한국에 입국한 최경주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경기 여주 페넬롭 동서코스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참가한다.

최경주는 "한국에서 경기를 하니 컷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 "짧은 코스에서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코스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다만 시차 극복과 바쁜 일정으로 인한 컨디션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최경주.

(사진=스포츠조선 제공)

조절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스가 조금 어렵게 세팅됐다고 들었다. 후배들의 기량도 예전 같지 않아서 경쟁하기 정말 쉽지 않다"며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몸과 시간 관리를 잘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틀러 최경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이번 우승이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며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이번에는 어렵게 현장에서 같이 즐기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관중과 함께 경기할 수 있는 날이 와서 호쾌한 샷과 멋진 경기를 같이 즐기면 좋겠다"고 밝혔다.

귀국 후 방역 수칙에 따라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최경주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음성 결과가 나온 이후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여자 컬링,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권 확보 노리나

팀 김, 스위스·캐나다서 2차 전지훈련... 믹스더블 김민지·이기정은 유럽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노리는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김(강릉시청)이 28일 2차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다.

스킵 김은정, 리드 김선영, 세컨드 김초희, 서드 김경애, 후보 김영미로 구성된 팀 김은 28일 출국해 다음달 28일까지 스위스 바젤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훈련한다.

이어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조율한다.

팀 김은 앞서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에서 1차 전지훈련을 치렀다.

훈련 기간 참가한 앨버타 컬링시리즈 사빌 샷아웃에서 7전 전승으로 우승했고, '서우드파크 여자컬링 클래식'에서는 4강까지 올랐다.

22일 귀국한 팀 김은 일주일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한 뒤 2차 해외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팀 김은 오는 12월 열리는 올림픽 자격대회에서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야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김민지(춘천시청)-이기정(강원도청)도 이날 전지훈련을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



김민지-이기정은 11월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에서 유럽 탐들과 실전 훈련을 통해 국제 무대 감각을 쌓는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이승준 코치, 이호승 트레이너, 김바울 통역이 동행한다.

믹스더블 외국인 코치 웨이드 스코핀은 스위스 현지에서 합류한다.

김민지-이기정은 베른 믹스더블 월드컵, 오스트리아 믹스더블 컵, 헤라클레스 믹스더블 슬로바키아 컵, 믹스더블 우치 등에 연달아 출전한다.

김민지-이기정도 12월 올림픽 자격대회에 나서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도전한다. /뉴시스

프로배구 GS칼텍스, 새 유니폼 공개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가 2021~2022 V-리그에서 선보일 새 유니폼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 디자인은 팬들이 직접 선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GS칼텍스는 8월 초 구단 SNS에서 온라인 팬 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유니폼의 디자인을 결정했다.

GS칼텍스는 10월16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흥국생명과 새 시즌 개막전을 갖는다. /뉴시스



요트 타고 당당하게 결승선 통과

부안군청 요트실업팀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 마리나항에서 개최된 제13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J24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 8개국 선수 300여명과 요트 34척이 참가해 후포 마리나항에서의 인쇼어 레이스와 독도를 돌아오는 448km의 대장정 ORC클래스 오픈쇼어 레이스 등으로 치러졌다.

부안군청 실업팀, 코리아컵 국제대회 J24 단체전 우승 "인천아시아게임서 우승했듯 다시 미래 위해 노력할 것"

부안군청 요트실업팀은 인쇼어 레이스 참가해 J24 클래스 단체전에서 당당히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부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부안군청 요트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10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창단된 부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실업팀으로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초희 부안군청 요트실업팀 감독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요트부품 종합우승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체전이 고동부단 치뤄져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내년 광주아시아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돼 지난 2016년 인천아시아게임에서 우승을 했듯이 다시 미래를 위해 팀 선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UEFA 슈퍼리그 주도 구단 징계 철회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럽슈퍼리그(ESL) 창설을 주도했던 레알 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이성 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에 대한 소송과 징계를 철회했다.

UEFA는 28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UEFA는 이들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불합리적이라는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유럽 12개 구단은 유럽슈퍼리그 창설을 깜짝 선언했다.

지금의 소속리그를 떠나 인기팀들끼리만 맞붙는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들의 프로젝트가 드러나자 국제축구연맹(FIFA), UEFA는 물론 축구팬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